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저귀 퇴비

생분해 플라스틱 기저귀, 양면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저귀 퇴비

I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저귀 퇴비를 생각하게 된 계기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였는데 바로 기저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용하시는 성인기저귀, 엄마가 사용하는 생리대, 동생이 사용하는 기저귀까지 사용량이 아주 많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의 양보다 고령화 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용하는 기저귀의 양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기저귀의 사용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생분해 기저귀로 퇴비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일상에 꼭 필요한 새로운 쓰임이 되기 때문에 기저귀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를 제안합니다..

II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 만드는 방법과 쓰이는 곳

생분해 성분의 기저귀를 만들고 사용한 기저귀를 따로 수거해서, 기저귀 속 대변과 소변을 함께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어서 필요한 농가를 지원합니다.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기저귀를 발효통에 넣고 퇴비를 만들기 위한 조건(탄소+질소) 맞춘 후 농사짓는 곳과 국가정원 등등 퇴비가 필요한 곳에 지원합니다.

III 기대효과

1.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를 사용하고 버릴 때 환경에 생분해플라스틱 기저귀로 퇴비를 만들 수 있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고 환경오염과 토양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시골로 귀농을 하거나 주말농장,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퇴비를 지원하여 농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퇴비로 만든 농업이 성공하여 전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수출하여 전세계가 다 함께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를 사용하고 선택 할 때 환경을 한번 더 생각하며 물건을 선택 할 때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